한국음식, 역사와 문화가 보인다

음식 인문학

주영하 지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음식'은 식품영양학이나 요리학의 대상으로 취급되며, 좀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세계 학계에서는 음식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음식학'(food studies)이라는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다룬지 이미 오래다.

'음식은 일상이자 인문학이다'라고 주장해온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생존의 기본 요건이자 식도락의 대상인 '음식'을 인문학의 영역으로 끌어낸 연구서 '음식인문학-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을 펴냈다. 저자가 1999년 이후 발표한 음식 관련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한국음식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 책은 크게 '오늘의 한국음식을 보다' '한국음식, 그리고 근대' '한국음식, 오래된 것과의 만남'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현대의 한국음식과 근대 한국음식의 정립, 한국음식의 전통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살피고 있다.

음식을 다룬 논문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풍부한 자료 제시와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어 쉽게 읽힌다.

그런데, 왜 일본 기무치는 백김치인데 한국에서는 고추김치가 보편적일까?

'한국음식의 매운맛은 어떻게 진화했는가'라는 논문에서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7세기 이후 제수용품인 어물의 수요가 늘고 이앙법(移秧法)과 대동법(大同法)의 성공으로 쌀밥이 정착하면서 방부제와 양념으로서의 소금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바다와 접한 면적이 넓은 일본과 달리 한국의 서민들은 소금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짠맛을 상쇄하면서 동시에 밥맛이 좋아지는 방법 중 하나로 모든 음식에 고추나 고춧가루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때 형성된 '밥+짠 반찬+매운맛'의 한국식 식단이 점차 보편화하고 1970년대 고추의 품종 개량으로 고추 생산량이 늘면서 '한국음식=맵다'는 등식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외에도 저자는 주택과 가족제도의 변화가 음식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음식 한류'의 실체는 무엇인지, 근대의 물결 속에서 한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책은 음식뿐 아니라 상차림, 외식문화, 요리도구 같은 음식 주변부의 역사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한·중·일의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의 역사를 비교하고, 음식문화에 투영된 유교사상을 파헤쳐 제사와 음식 문화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또한 주막을 통해 근대 도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산업과 상업 중심의 도시로 성장했는지 보여주며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등장한 음식 관련 묘사들을 치밀하게 살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얽힌 상식을 반전시키기도 한다.

이번 책은 '음식'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논하는 선구적인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주석과 참고문헌의 정리도 훌륭하다. 다만 방대한 분량에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다소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 흠이다.

〈휴머니스트·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중식의 '조선통상장정 기념 연희도'. 이 그림에는 19세기 말 조선 음식 문화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의 서양에 대한 태도와 근대의 실천과정 등이 담겨있다. 〈휴머니스트 제공〉

삶의 소박한 행복, 수도원의 일상 담아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해인 수녀 지음

암 투병 중인 이해인(66) 수녀의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가 출간됐다. 산문집으로는 2006년 펴낸 '풀꽃 단상'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펴낸 시집 '희망은 깨어 있네' 에서도 암과 싸우며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과 긍정을 노래했던 그는 이번 산문집에서도 위로와 삶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의 첫 머리는 이 책을 위해 글을 써 주겠다는 약속을 뒤로하고 지난 1월 별세한 박완서 작가의 편지가 실렸다. 고인과 아픔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각별한 정을 나눈 그는 이번 책의 서문을 이 편지로 대신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번 산문집에는 치료와 상실의 고통과 삶의 소박한 행복이 교차하는 수도원의 일상을 담은 일기, 법정 스님·김용택 시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우정에 대한 단상 60여 편, 기도와 묵상일기 등이 실렸다.

이외에도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장영희 교수, 이태석 신부, 수필가 피천득, 화가 김점선 등 그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들에 대한 추억, 그들을 먼저 보낸 슬픔으로 쓴 추모 일기 등도 들어 있다.

글과 함께 책을 장식한 황규백씨의 따뜻한 그림도 인상적이다. 〈샘터·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수명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

'나는 몇 살까지 살까?'

하워드 S. 프리드먼·레슬리 R. 마틴 지음

1921년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터먼 박사는 1910년께 태어난 소년 소녀 1500명을 선발해, 이들의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종적 연구를 시작했다. 터먼 박사가 숨진 뒤에는 후배 연구자들이 그 뒤를 이었으며, 심리학계의 기념비적인 연구로 평가받는 이 프로젝트는 2000년 마지막 참가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려 80여년에 걸쳐 진행됐다.

하워드 S. 프리드먼과 레슬리 R. 마틴 교수가 엮은 '나는 몇 살까지 살까?-1500명의 인생을 80년간 추적한 사상초유의 수명연구 프로젝트'는 그간의 연구결과에 사망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고, 실험 참가자들의 건강과 수명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원제 'The Longevity Project'

저자들은 터먼 프로젝트 결과를 재해석해 식습관, 운동량, 스트레스 수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단편적인 요인만으로 건강과 수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운동해라', '살 빼라', '고기 대신 채소를 먹어라' 등의 조언과 지침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짚는다.

또한 현대의학이 저지르는 편향된 연구들과 거의 모든 사람을 환자 취급하는 과잉진단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건강심리학 자기진단법도 수록돼 있어 자신의 수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쌤앤파커스·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열심히 살아가는 현대인들… 외로운 나!

'심야 치유 식당'

하지현 지음

아베 야로의 만화 '심야식당'에 등장하는 음식점은 매일 밤12시에 문을 연다. 주인장은 비엔나 소시지 볶음, 하루 묵힌 카레 등 고객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고객들은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무엇보다 위로를 받는다.

'도시 심리학' '관계의 재구성' 등 쉽게 읽히는 심리학 관련 책들을 꾸준히 출간한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의 새로운 심리 에세이 '심야 치유 식당'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만화 '심야식당'이었다.

상담 사례 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곤 했던 저자는 이번에는 조금은 독특한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마음이 춥고 배고플 때 가고 싶은 곳'이라는 컨셉의 바를 찾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소설 형식을 빌어 쉽게 읽힌다.

저자는 원초적 외로움을 자극하는 공간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라며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전직 정신과 의사인 철주는 대학가에 바 '노사이드'를 차린다. 그의 바를 찾은 첫번째 손님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48일 동안 잠 못들고 있는 직장인 민수다. 평소 모범생으로 살아온 그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지독히도 채근하는 스타일. 이런 그에게 새로 부임한 본부장은 성과를 내라고 닦달하고, 그는 이런 과정을 견뎌내지 못한다.

철주는 민수에게 때로는 트랙에서 벗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임을 이야기한다.

책은 또 사람들의 시선에 유난히 촉각을 곤두 세우는 자신감 없는 여자 유진, 짜릿한 삶과 안전한 삶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미치겠다는 미영 등이 털어놓은 고민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조언을 해준다. 물론 철주가 손님들에게 제시하는 해법들이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연은 정도 차이만 있지 우리에게도 있을법한 이야기들이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푸른숲·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국, 월스트리트에 관심을 보이다

'월스트리트'

中 CCTV 다큐 제작진 지음

길이가 불과 6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세계 금융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Wall Street)' 얘기다. 떠오르는 경제 강국 중국이 월스트리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이곳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KBS 1TV가 10부작 특선 다큐멘터리로 최근 방영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내용을 책으로 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월스트리트'가 나왔다. 책은 중국 CCTV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펴낸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은 크게 2부로 나눠 월스트리트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1부는 월스트리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세기 동안의 역사와 이곳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추적한다. 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현재 모습과 미래 전망을 담았다.

2부는 워런 버핏, 짐 로저스, 제임스 채노스, 나이젤 히긴스, 로버트 펜노이어 등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큰손들과의 맨투맨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또 우징롄(吳敬璉)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천즈우(陳志武) 예일대 경영대학원 종신교수 등으로부터 중국 자본시장에 월스트리트가 시사하는 바를 들어 본다.

〈KBS미디어 미르북스·2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복스=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일본 작가 하쿠타 나오키(55)의 소설 . 고교 권투부를 무대로 소년들의 뜨거운 우정과 성장을 그린 청춘 스포츠 소설이다. 지난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상영된 동명 영화의 원작으로, 몸이 약해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모범생 기타루와 만능 스포츠맨으로 학교에서도 인기스타인 가부라야가 권투부에서 만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았다.

〈문학동네·1만5000원〉

▲내 마음의 아리아='이 한 장의 명반'시리즈의 저자 안동림(79)씨가 60여 년을 들어온 클래식 음악의 백미, 주옥같은 아리아를 꼽아 그 아름다움을 전한다. '거룩한 아이다'에서 '별은 빛나고'까지 영혼을 위무하는 노래, 마음을 적시는 귀에 익은 아리아 등 불멸의 오페라 아리아 명곡 63곡을 따스한 해설과 함께 담았다. 〈현암사·3만5000원〉

▲노웨어맨=200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염승숙(29)씨의 두 번째 소설집. 개인 파산, 청년실업의 우울한 세태를 다룬 단편 8편을 실었다. '어디 한 곳에 귀의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표제작 '노웨어맨'(nowhere man 혹은 now here man)에서 보듯이 허무맹랑한 환상의 세계와 지독히도 끔직하고 비루한 현실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삶의 진실에 관한 문제에 접근한다.

〈문학과지성사·1만1000원〉

▲역사를 다시 쓴 10가지 발견=로제타스톤의 발견이 없었다면 지금도 고대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로제타스톤의 비문 내용은 평범하지만 고대 이집트문자와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문자 등 세 가지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를 고대 이집트와 연결해 주었다. 트로이, 폼페이, 사해문서, 투탕카멘의 무덤 등 역사를 다시 쓰게한 10가지 고고학적 발견을 추적했다. 〈오늘의책·1만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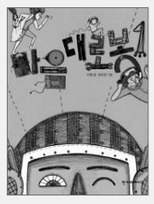
▲리더의 조건=중국에서 오랫동안 경영학과 고전을 연구한 김영진 신구대 비즈니스 중국어과 교수가 사서삼경과 사기, 근사록, 채근담 등 중국 고전을 재해석해 리더가 갖춰야할 덕목을 제시한다. 고전 속 251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라', '재능보다는 덕이 먼저다' 등의 조언을 전한다.

〈문학마을·1만2500원〉

▲모든 이를 위한 수학=독일 슈피겔지의 학술전문기자이자 수학자인 흘거 담베크가 수학이 우리생활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흥미롭게 읽는 법을 안내한다. '평균적인 사람'이란 무엇인지, 지하철 환승의 대기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등산을 할때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것이 힘이 덜드는지 등 재미있게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라이프맵·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



▲노빈손의 위풍당당 러시아 행진곡=노빈손 '세계 역사 탐험 시리즈' 제10탄. 이번 여행에선 노빈손이 비밀 스파이로 변신한다. 노빈손의 모험을 통해 러시아를 북방의 최강자로 만든 북방전쟁의 배경과 의의, 전개 과정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다. 러시아에서 발레가 자리잡은 과정도 보여준다.

〈뜨인돌·9500원〉

▲스위치 2-파리를 조정하라=쌍둥이 형제가 파리로 변신해 경험하는 모험을 그렸다. 제트기처럼 공중을 가로지를 수 있는 날개, 360도를 훤히 볼 수 있는 눈, 냄새로 멀리 떨어진 치약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후각 등 실제 파리가 돼 곤충의 특징을 알아본다.

〈웅진주니어·9000원〉

▲마음대로봇 1, 2='짜장면 불어요!' 등을 낸 동화작가 이현의 신작. 고객에게 꼭 필요한 로봇을 만들어 빌려주는 맞춤형 로봇 대여점 '마음대로봇'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에피소드를 그렸다. 2045년을 배경으로 한 SF 동화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현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풍자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돋보인다.

〈한겨레아이들·각권 9500원〉

▲맛있는 구름 콩-두부 이야기=우리 그림책 시리즈 5권.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밭에서 자란 콩이 여러 손길을 거쳐 맛있는 두부가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알려 준다. 구름이 되고 말겠단 의지로 똘똘 뭉쳐 재잘재잘 구름이 되는 법을 의논하며 스스로 두부의 길로 들어서는 콩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국민서관·1만원〉

▲외할머니의 분홍 원피스=임달솔씨의 2008년 5·18기념재단 문학공모전 입상작. 주인공 '한나빛'이 5·18민주화운동으로 딸을 잃은 외할머니의 기억속으로 여행을 떠나며 겪게되는 이야기를 판타지 형식으로 재미있게 그렸다. 실화를 바탕으로해서 현대사를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청어람주니어·9500원〉